

“도내 현안, 정부차원 대책 마련을”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송 지사는 14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수현 사회수석에 비롯해 홍장표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을 잇따라 면담하고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지난해 7월 1일)에 이어 8개월 만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지난달 13일)으로 전북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그동안 전북도는 GM차 907대 판매, 관용차량 구입, GM차 사주기 캠페인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의 내수진작에 도민역량 결집한바 있으나 GM의 일방적 군산공장 폐쇄 예고로 도민들은

송 지사, 청와대에 건의

“GM 군산공장 정상화

연기금전문대학원

국립보건의료대 설립해야”

허탈감과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행히 대통령께서 지난 2월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 살리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관계 부처는 고용 및 산업위기에 특례지역 지정 개정고시(3월 6일) 등 신속한 절차 이행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부 차원의 ‘군산 지역 경제 지원대책 TF’ 구성·운영, 관

계 장관회의를 통해 우선 시급히 필요한 2,400억원 규모의 정부자금 및 특고세 65억원 지원 등 대통령의 각별한 지원 의지에 감사하다”는 말도 전했다.

송 지사는 “정부가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 창원 공장만 계속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국GM과 협상 시, 전북 도민들은 작년 현대 조선소에 이은 두 번의 지역 소외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군산조선소, 서남대 폐교에 이어 설상가상 GM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아 2중·3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가뜰이나 허약한 전북 경제는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GM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 외에도 김수현 사회수석에게는 별도로 지역현안사업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기재부 동의로 국가예산이 반영되었고, 복지부도 추진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 제2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전향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서남대 폐교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노후 공동주택 ‘새 옷 입는다’

전주시, 33곳에 관리비 지원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33개 단지에 주택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총 8억원을 투입해 남고아파트 등 완산구 16개 공동주택과 미도아파트 등 덕진구 17개 공동주택 등 총 33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공사를 지원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단건별로 사업비의 70% 이내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열린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단지에서는 올 연말까지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등 아파트 내구성을 위한 보수공사와 단지 내 담장 철거 후 조경식재, 도로, 지하주차장 LED설치 등 부대시설의 보수 등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도시의 이미지를 해치던 낡은 공동주택의 외벽도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공동주택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이라며 “입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활력을 주고 전주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일부를 단건별로 사업비의 70% 이내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열린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

전주시, 농업재해 대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전주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 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를 비롯한 48개 품목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

입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전체 보험료 중 국비 50%와 지방비 30% 지원, 농가에서는 나머지 20%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과수 및 원예 시설, 벼(오는 11월 30일까지)와 벼(4월중) 등 재배 항목별로 다르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가까운 농업방문, 신청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우리동네 ‘공약’, 유권자가 직접 우체통에 쏙~

도선관위, 공약 우체통 운영
3월 말까지 분야별 작성
예비후보자 등에게 전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원하는 공약을 거꾸로 제안할 수 있는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선관위와 각 구·시·군선관위는 공약배달부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지역 오피니언 리더, 지역명사 및 유권자 등으로부터 단체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수집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3월 말까지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으로 희망공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한 희망 공약은 분야별로 정리·작성하여 예비후보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과 공약을 예비후보자 등에게 전달하여 유권자와 후보자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 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원하는 공약을 거꾸로 제안할 수 있는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을 통해 “후보자들은

공약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하며, 유권자들은 선거 참여를 통해 동네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통시장 야시장 전북 2곳 선정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 군산 명산·남원 공설시장 등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1곳은 정읍 쌍화차거리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2개 공모사업에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야시장 공모사업에 군산 명산시장과 남원 공설시장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정읍 쌍화차 거리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당 5개소가 선정되는 가운데 최종 선정지 10개소 중 전북에 3개소가 선정되어 전국 최다이다.

이번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군산 명산시장과 남원 공설시장은 앞으로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 야간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정읍 쌍화차 거리는 앞으로 주민·상인 주도로 지역의 골목 특성과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적 사업방식을 통한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도 특별교부세 5억원 포함 사업비 10억원이 지원된다.

황철호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경제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과 골목이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시장과 상권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